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못다 부른 명량의 노래

(강진의 명장, 김억추 장수 이야기)



강진군
【문화예술과】

명량으로 가는 바다

마파람과 하늬바람이 섞인 남서풍이 불었다. 판옥선 13척은 침자진 대오를 유지하며 장흥 앞바다를 지나갔다. 맨 앞은 김억추가 이끄는 판옥선이 향도 노릇을 했다. 전라도 바다에는 아직 왜선이 없었으므로 탐망군을 보낼 필요는 없었다.

날씨는 청명하고 바다는 잔잔했다. 초가을 길목이라 석양 무렵의 햇살인데도 따가웠다. 김억추는 전령선인 작은 협선을 타고와 이순신이 타고 있는 대장선에 올랐다.

“통제사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그만요. 여그 바다는 적선덜이 읊으니까라.”

“회령포 수졸덜을 모다 델꾸 가니까 여력이 쪼깐 생겼지유. 시방은 척후선을 보낼 여력이 읊지만서두.”

회령포진 장졸들 5백여 명과 순천과 보성에서 모병한 2백여 명을 합치고 보니 여유가 생겼다는 이순신의 말이었다. 모병한 군사 중에는 의병도 몇 십 명 되었다.

그러나 김억추는 그 정도의 군사로는 왜군을 상대하기가 버겁다고 판단했다.

“우수영 군사를 다 합쳐분다고 해도 그러그만요.”

“거그 군사는 을매지유?”

“정에 장졸, 토병, 포작선에 탈 양민덜까정 다 모으믄 2천여 명은 되겠지라.”

“칠천량해전에서 피해를 보지 않았슈?”

“아니지라. 우수영 군사도 전멸했그만요. 그래서 지가 부임 하자마자 장졸덜을 여그 저그서 닥치는대로 보강했지라.”

“고맙구먼유.”

이순신이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었다. 우수영의 수군 규모가 정규군과 비정규군을 합쳐서 2천여 명이나 된다고 하니 안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갑자기 희망이 솟구쳤다. 사실 김억추가 전라우수사로 부임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수군보강이었던 것이다. 회령포진 수군 5백여 명도 김억추가 장흥부사로 부임해서 토병들을 흡수해 재정비한 군사나 다름없었다.

“우수영 2천여 명에다 이진, 어란포, 진도의 수군까정 합치믄 3천여 명은 되겠구만유.”

“허지만 왜선은 수백 척, 수군은 수만 명인디 상대가 될게라?”

“그러니께 우덜이 시방 명량으로 가구 있는 거지유. 군사 한 명이 천 명을 대적할 수 있는 명량으루 말이유.”

“소장도 명량이라 불리는 울돌목이야말로 최고의 요해처라고 믿지만 조건이 있지라.”

김억추도 이순신 못지않은 전술에 능한 지장이었다. 전력이 크게 차이가 나면 아무리 아군에게 유리한 지형이라도 조건이 있었다. 그 조건이란 전투는 단 한두 번에 끝나야 했다. 전투를 반복하면 피아 사상자가 늘어나므로 결국 전력이 우세한 쪽으로 판은 기울게 마련이었다.

육전이나 해전에서의 인해전술은 가장 비능률적인 전술이지만 또한 그만큼 확실한 전술이었다.

“조건이 뭇인디유?”

“통제사께서도 아실 거그만요. 싸움을 단 한두 번에 끝내 부러야 허지라.”

“하하하.

장흥바다를 벗어나 판옥선들이 강진만을 들어서자 완도 쪽 바다가 벌겍게 물든 쇠물 같았다.

갈매기들이 판옥선을 따르며 어지럽게 날았다. 김억추는 멀리 보이는 남당포를 응시했다. 장흥부사로 있다가 한 달 전쯤 남당포에서 상선을 타고 우수영으로 갔던 것이다. 이순신 역시 지금 지나가고 있는 바닷길이 낯설지 않았다.

작년(1596) 윤8월에 전라도 주요군창을 점검하기 위해 순시하면서 홍양에서 배를 타고 장흥부로 가서 강진 전라병영성을 둘러 전라병사 원균을 만난 뒤, 완도 가리포로 내려가 남해 바다를 살핀 다음, 이진을 거쳐 우수영으로 올라가 4일을 머무르다 영암으로 이동했던 것이다. 김억추가 말했다.

“적선이 우수영으로 올게라?”

“반다시 올 거구먼유.”

“으째서 그럴게라?”

“놈덜은 조선수군이 웅간히 남아 있는 줄 알거구먼유. 그러니께 우덜 숨통을 확실하게 끊을라구 허졌지유.”

“확인 사살하러 온다는 말씀이그만요. 그래야 전라도 바다도 지덜 바다가 될틴께.”

“맞아유.”

석양을 받은 이순신의 얼굴이 붉게 변들거렸다. 석양빛을 받는 두 눈에 불이 붙은 듯했다. 김억추는 이순신의 눈에서 불같은 적개심을 느꼈다. 이순신이 말했다.

“왜놈덜이 이쪽으로 오는 이유가 하나 더 있지유.”

“고건 또 똥인게라?”

김억추의 눈에서도 석양빛을 받아 불이 튀었다.

“나 이순신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러 오는 거지유.”

“참말로 징헌 놈덜이그만요.”

“나 이순신을 죽이기보담 생포할려구 허겠지유. 왜왕 풍신수길(豊臣秀吉)이란 놈의 야욕 땀시지유.”

이순신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왜왕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군이 전투에서 패배하면 왜군 장수에게 반드시 승리한 조선 장수의 머리를 가져오라는 특명을 내리곤 했다. 1차 진주성 싸움에서 성주 김시민에게 패배하자 왜장들에게 김시민의 머리를 요구했고, 바다에서 왜수군이 연전연패하자 왜장들에게 이순신의 머리를 가져오라는 특명을 내렸던 것이다.

바다를 핏물처럼 벌겁게 물들인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저버리자 사위는 금세 어둠이 스멀스멀 번졌다.

뱃전에 부딪치는 파도가 잔광을 받아 잠시 희끗희끗 드리눴다가 사라질 뿐이었다. 김억추는 전령선을 타고 맨 앞에서 달리는 판옥선으로 돌아왔다. 김억추가 이끄는 판옥선의 격군들은 대부분 고참 수졸들로 능숙하게 노를 저었다. 노는 힘이 아니라 요령으로 젓는 법이었다. 돛을 다루는 요수들도 두 개의 돛폭을 바람에 따라 능숙하게 대처했다.

강진만에서 이진으로 향할 때는 강한 셋바람이 불어와 판옥선의 속도가 빨라졌다. 13척의 판옥선들이 고래 떼처럼 부드럽게 파도를 헤치고 나아갔다. 평소라면 한나절 걸리는 거리인데 예상보다 빨리 이진에 도착할 것 같았다. 13척의 판옥선들이 이진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는 캄캄한 밤하늘에 노란 하현달이 군사를 반기듯 떠 있었다.

이진 관아는 관노와 구실아치들이 피난을 가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 관군들은 우수영이나 가리포로 차출되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늙은 진무가 관아와 마을 집을 오가며 관노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순신과 김억추만 판옥선에서 내려 이진 관아에서 늙은 진무의 안내를 받아 잠잘 방을 구했다.

이순신과 김억추는 군관청으로 가서 큰방은 이순신이, 뒷방은 김억추가 차지했다. 김억추는 선봉선장이 되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판옥선 12척의 향도 역할을 했으므로 몹시 피곤하여 곧 골아 떨어져 잤다. 그러나 이순신은 지병인 배앓이를 하며 뜬눈으로 밤을 샜다. 관노에게 군불을 지피라고 하여 아랫목에 배를 댔지만 소용없었다.

방은 미지근해졌다가 곧 식어버렸다. 꼭두새벽이 되자 기어코 뱃속의 창자가 꼬인 듯 통증이 심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뱃속이 온통 뒤틀렸고 쥐어짜듯 아팠다. 참기 힘든 토사곽란이었다. 이순신의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관노가 울상이 되어 말했다.

“대감마님, 군불을 더 뿔게라우? 방이 찬 모양입니다요.”

“소주가 있는 겨?”

“시방 구해보겠습니다요.”

“얼능 가져 오그라.”

김억추는 눈을 뜨고 이부자리를 깬다. 관노들이 마당을 쟁걸음으로 오가는 소리에 잠을 깬 것이다. 이순신에게 무슨 사고가 난 것 같았으므로 김억추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서 방문을 열었다.

이순신 방문 앞에서 헛기침을 했다. 방 안에서는 끽끽 앓는 소리만 났다.

“통제사 나리, 무신 일인게라!”

“...”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순신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이순신이 입고 있는 속옷은 진땀이 흘러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으디가 편찮으신게라?”

“여, 여그요.”

이순신이 오들오들 떨면서 배를 가리켰다. 김억추는 오한이 들어 떨고 있는 이순신에게 이불을 덮었다. 그때 관노가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와 소주를 내밀었다.

“대감마님, 썩주를 가져왔습니다요.”

“몸이 차니께 이런지 모르겠다.”

이순신이 소주를 호리병째 들고 꿀꺽꿀꺽 마셨다. 순간 김억추는 아차! 싶었지만 이순신이 소주를 마셔버린 뒤였다. 토사곽란에 소주를 마신다는 것은 기름에 불을 지르는 일이나 마찬가지로 였던 것이다.

소주는 소화불량에 어느 정도 효험은 있지만 토사곽란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위장을 마비시켜 혼절케 할 수도 있었다. 김억추가 걱정만 대로 이순신은 인사불성이 되어 쓰러져 버렸다. 그러나 잠시 후 이순신은 이를 악문 채 겨우 앉아서 날이 셀 때까지 버텼다.

소주 기운이 가실 때쯤에야 이순신은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다리를 뻗고 누웠다. 관노가 미음을 쑤어 왔지만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다. 한 모금이라도 목구멍으로 넘기면 그대로 토할 뿐이었다.

다음날 이순신은 우수영으로 가기 위해 대장선을 탔으나 곧 내려오고 말았다. 파도에 흔들리는 배에 있기가 불편해서였다. 김억추는 자신이라도 먼저 우수영으로 귀진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상관의 토사곽란으로 끔끔 앓고 있었으므로 자신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장수들은 자신의 수영(水營)을 떠나면 고생이었다. 바다 위에 있거나 물에 있거나 마찬가지였다. 수영이 아닌 곳에서는 먹는 것에서부터 잠자리까지 모든 것이 편하지 못했다.

이순신은 3일 만에 토사곽란을 털고 일어났다. 김억추는 또 다시 선봉장이 되어 꼭두새벽에 어란포진으로 향해 갔다. 아침밥은 도쾌포에서 해결했다. 도쾌포에서 어란포진까지는 지척이었다. 어란포진도 이진과 같이 바다든 육지든 텅텅 비어 있었다. 김억추가 군관을 이순신에게 보내 보고했다.

“모다 피난을 가불고 읍는다 으째야쓰까라우?”

“간민이 설치구 댕길지 모르니께 오늘은 배에서 잘 것이다.”

군관은 이순신의 명을 김억추에게 전했다. 어란포진도 이진과 같은 이유로 관아에 관노와 구실아치들만 남아서 지키고 있을 터였다. 논밭이 있는 양민들 역시 피난가지 않고 가을추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일찍 피난을 떠난 사람들은 양민 집에서 농사품팔이를 하던 천민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자 빈 집에는 유랑민들이 들어와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쳐 양민들의 재물을 훔치는 일이 잦았다.

이순신과 김억추는 판옥선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새벽 무렵에야 어란포진에 내렸다. 이순신은 마을의 동태를 살피고자 하였고, 김억추는 전라우수사로서 어란포진을 점고하기 위해서였다.

관아에 들어서자 부엌때기 같은 처녀가 나와서 맞이했다.
김억추가 물었다.

“여그 종이냐?”

“아닙니다요. 원네는 관가에 더부살이하고 있습니다요.”

이순신도 처녀를 이리저리 살펴본 뒤 물었다.

“종이 아니라든 성이 있는 겨?”

“김해 김가이옵니다요. 이름은 관원들이 그냥 어란이라고 부릅니다요.”

“어찌하여 관가에 붙어사는 겨?”

“부모님이 피난을 가버려 에린 나이 때 친지 손에 이끌려 관가에 맴겨졌습니다요.”

“알겠다. 가 있그라.”

잠시 후 어란이 아침상을 차려왔다. 밥상은 조출하고 정갈했다. 그때였다. 관아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치고 있었다. 이순신이 어란에게 물었다.

“누군 겨?”

“원네도 보았는디 당포에서 왔다는 피난민입니다요.”

이순신은 아침밥을 먹다 말고 밖으로 나갔다. 소를 끌고 가는 두 사내가 “적이 쳐들어왔다. 적이 쳐들어왔다.” 라고 소리 치며 선동했다. 양민들이 마을을 떠나게 하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순신은 소를 끌고 가는 두 사내를 도둑으로 단정했다. 피난민이 소를 가지고 있다니 이상했다. 이순신은 칼을 빼어들고 다가가 사내를 붙잡았다.

“네 이놈!”

무서워서 눈치만 보고 있던 마을 양민들이 하나 둘 모였다. 이순신이 관노들에게 지시했다.

“이놈덜을 묶어라.”

관노들이 달려가 두 사내의 손을 묶어 꿰어앉혔다. 이순신이 다시 다그쳤다.

“니덜은 으디서 온 놈덜이냐?”

“당포에서 온 보자기입니다.”

바닷가에서 해초를 뜯고 고기잡이를 하는 떠돌이를 보자기 라고 불렀다.

“니덜을 받아준 마실 양민덜에게 은혜를 갚지는 못할망정 소를 훔쳐서야 쓰겠는가!”

“아이고, 살려만 주시든 무신 일이든 하겠습니더.”

“니덜은 사람이 아니니라.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으믄 짐승이나 다름없는 겨.”

이순신은 단호했다. 꿰어앉아 있는 두 사내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사내의 목이 하나씩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이순신이 칼에 묻은 피를 닦으며 늙은 관노에게 지시했다.

“간짓대에 머리를 매달아 두거라.”

“예, 대감마님.”

그제야 양민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마을로 돌아갔다. 김억추도 판옥선으로 돌아와 장졸들의 사기를 살폈다. 어제와 달리 병이 난 장졸은 없었다. 김억추는 그날 밤도 판옥선에 머물렀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당포에서 왔다는 보자기가 왜적과 내통하는 간민(奸民)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였다. 왜적으로부터 무언가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미리 혼란을 부추기고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던 것이다.

김억추는 이순신의 지시가 없었지만 장졸들에게 새삼 임무를 숙지시켰다.

화포장은 선수로, 요수와 무상은 돛과 닻 앞으로, 격군장은 격군들에게, 활을 쏘는 사부들은 판옥선 옆구리로 돌아가 경계를 철저하게 했다. 이진이나 어란포진은 전라우수영 관할이므로 김억추로서는 다른 장수들보다 긴장이 더했다. 무거운 책임감이 머리를 짓눌렀다. 삼도수군통제사인 이순신과는 또 다른 심정이었다. <계속>